

“미래포교 대안 세우자”

새천년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 간담회

“통일법요집·불교성전 편찬 필요”
“어린이 전문지도교사 자격제 실시”
“초등생 대상 파라미타 운영해야”



△안성 너리굴수련원에서 열린 청소년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는 60여명의 지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미래불교의 향방을 가늠할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28일~29일 '청소년 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안성 너리굴수련원에서 열렸으며, 이어 31일에는 '어린이 포교단체간담회'가 포교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포교원이 실시한 '어린이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와 7월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포교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포교일선에 나선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도자교육기관 개설, 단체간 연대와 정보교류,

정확정보, 시대에 맞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소년 포교와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설립 4년을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의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앞둔 포교정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전문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자 연수의 정례적 실시와, 교사불자연합회의 적극적인 결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고등학생불자 포교에 앞서 초등학생 포교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초등파라미타 운영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포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이 포교단체 연합의 어린이법회지도자 교육과정 개설과 어린이용 통일법요집, 통일불교성전 편찬, 어린이포교단체 연합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어린이법회지도자 교육과정 개설 제안은 그동안 불교교육연구원, 불교교육연구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해 각 과정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전문지도교사(포교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지도인력 수급과 양성을 패자는 것이다. 어린이용 통일법요집과 통일불교성전편찬 작업 또한 각 사찰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법요집을 통일해 어린이시절부터 제대로된 의식교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다. 이같은 작업을 위해 어린이포교단체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각 단체의 실무자간의 정보교류와 지역단위의 협의체 구성등 어린이포교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교육환경변화와 탈종교시대에 대비 초등교육과정과 연결된 범회 산행프로그램개발,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통신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및 소외계층 어린이포교 활성화 등 미래포교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⑮



서 세욱 (화가)

가장 한국적 전통에 바탕하여 가장 창조적인 예술세계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화가, 산경 서세욱(72). 구릿빛 피부며 건강한 체격에서 결코 고회(古稀)를 넘어선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100~300호등 대작을 내놓는 화가다. 대부분 사람 인(人)자를 직선 또는 원으로 병렬시키거나 사방으로 연결해 고통과 환희, 갈등과 화합, 긴장과 휴식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묘사한다. 이런 그림은 대상을 재빨리 포착, 최소한의 붓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까지 파고들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작품들이다.

따라서 그는 독특한 작업 자세를 가지고 있다. 바로 독파상과동전개, 홀로 서있듯 같은 창(窓)을 잡고 적진(캔버스)을 둘러싸고 있다.

“線 속의 禪” 삼독 비우는 정진 열린 마음 가지면 심신 밝아져

스)를 풀어야 한다.

“어느 키보다 크고 팔뚝보다 굵은 붓을 한번에 휘둘러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작품을 하다 보면 온 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때 몸과 마음의 삼독(三毒)이 모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고회를 넘어서서 서화백의 건강비결은 바로 선(線)으로 선(禪)의 경계에 매번 돌진하고, 몸과 마음을 비우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외에도 ‘바운 뒤 갠 날처럼 맑은 정신상태’, ‘자물을 보는 열린 마음’, ‘붓과 먹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힘과 능력’ 등은 작품을 그리는 태도에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친구와 제자들 사이에서 허물없는 사람으로 통한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 상태 즉, 열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시기가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맑은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일찍이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란 이 세상과 저 우주의 온갖 것들이 모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서화백은 건강한 마음에는 당연히 건강한 신체가 따르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국내외 여성불교운동 흐름 조명

월간 '불교저널' 9월호 특집 신선

대행스님 독일법회 자세히 소개

월간 '불교저널'은 9월호에서 조계종 포교원 산하 (가)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앞두고 '여성 불교'를 특집으로 다뤘다. '새롭게 불교는 여성불교'라는 소재 특화에 최근 열렸던 여성불자 워크숍등 여성불교의 흐름을 진단하고, 한국여성불교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스리랑카 미얀마의 여성불교를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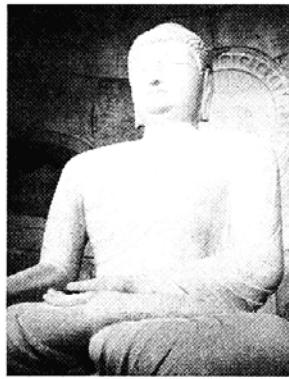
일제시대부터 해방 오늘날까지의 여성불교현황을 두루 고찰한 '한국여성불교운동의 발전과정' 편에서 근현대불교사에서 여성불교운동은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방적인 여성운동이 근대적 여성들의 자각과 자유,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제도의 타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데 비해 여성 불자들을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1922년 조선불교 여자청년회를 필두로 지역과 단체에서 수십여개의 여성불자조직이 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성 불자들의 적극적인 신행노력과 불교의효의 자각정성이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지탱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리랑카의 여성 불교와 미얀마의 여성불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19세기말 스리랑카의 불교가 다시 일어나는데 적극 기여한 스리랑카의 여성 불자들은 비구니 종단이 없는 상황에서 붓다시대 이래 가장 신심있는 불교인들이 수지해 왔다는 10계를 지키며 '다사 실 마타보(dasa sil mata-vo)'라는 여성불자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십계를 지키는 여성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있는 이들이 모여 1907년 '우바이의 사랑'이라는 불교운동기구를 만들어 오늘날까지도 어린 소녀들을 위한 학교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은자 기자

비디오 '한국의 국보' 日서 인기

NHK 제작...석굴암 서산마애불 등 소개



△일본 NHK방송에서 한국의 불교 및 국보급 문화재를 소개한 비디오가 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경주 석굴암(국보 제24호)내에 있는 문존불상.

정자와 조선탐자 등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국보를 고화질 영상으로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영상들은 '서산마애산존불'과 '경주 석굴암' 법주사 청동머리대불 등이 들어 있다.

일본에서 한국의 불교 문화재와 국보만을 담은 영상물이 제작되는 것은 처음이다. 시대별로 상하 2권으로 만들어진 이 비디오는 NHK가 10년전 한국에서 촬영해 방영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최근 자료를 추가해 새롭게 구성했다.

제작자는 NHK 계열사인 'NHK 소프트웨어'에서 유일한 한국인 프로듀서로 근무하고 있는 차영미씨(28)로 "지난해 10월 김대중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일본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착안해 제작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차씨는 오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된 작품 등 앞으로도 불교 및 한국 문화 소개하는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주필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금니주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격: 45cm×45cm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안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34-9490, 334-9491
야간: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영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담다리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담다리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담다리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34-9490, 334-9491
야간: (0342)706-3060